

## 가을학기 개강, 3년 만에 대학 축제 준비

지난 8월 29일, GIST는 전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가을학기 개강을 맞았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대학 축제 등 여러 대면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대면 행사가 무사히 열릴 수 있을지 전망을 살폈다.

### 3년 만에 대학 축제 준비해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문화 행사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합심해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섰던 대학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 축제는 오는 10 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저녁 시간 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주제는 각각 '할로윈'과 '빛'이다. 주제에 걸맞은 각종 동아리 부스와 푸드 트럭, 버스킹과 공연 등이 즐길 거리로 꾸힌다.

지난 7월 18일부터 입학학생처와 학생 대표는 성공적인 대학 축제 개최를 위한 의견 공유를 이어오고 있다. 문화 행사위원회(이하 문행위) 오세훈(전kip, 20) 위원장은 "축제를 경험해 본 위원이 없어서 막막했지만 전 위원 선배들과 입학학생처 선생님들의 조언 덕분에 순조롭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영립(기초, 21) 위원장은 "연예인에

### 대학 내 식품 판매 관련 규정 부스와 푸드트럭, 무엇이 다른가?

학생 단체 부스	푸드트럭	
학교 내 축제목적 판매 행위	불가 (비영리 친목도모 행사 목적 제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고 대상 아님	
위생 관리	안전 여부 불명확	
비위생적 판매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	
* 삽화 = 최정은 기자		

과도하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을 피하고, GIST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위원장은 "축제 개최 여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개최 여부가 유동적임을 밝혔다. 지 위원장은 "3년 만의 대면 축제인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 위원장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 등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푸드트럭, 대학 축제 먹거리 전담해

대학 축제 동아리 부스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모습은 앞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의 대학 축제에 관한 식품위생관리법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으로 축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지난 5 월 열렸던 '여름, 밤, 캠퍼' 행사에서도 학생단체가 운영하던 먹거리 판매 부스의 자리를 푸드트럭이 대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단체의 비위생

적인 식품 조리 행위, 행사 목적이 아닌 불특정인에게 교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다.

학생단체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상태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 단체와 달리 푸드트럭은 대학 내 음식 조리·판매가 가능하지만,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푸드트럭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식품위생 교육을 받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생 상태를 점검받는다.

교육부에서 이런 안내를 한 까닭은 학생들이 식품위생법을 인지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생팀 민경숙 팀장은 대학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음식 판매는 학생단체별로 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입학학생처는 주 후 학생단체가 행사에서 식품 조리 및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판단했는지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짐〉

## 장성로컬푸드 직매장, GIST 코앞에 자리 잡다

지난 6월 28일, GIST 대학원기술사 건너편에 지어진 올로우시티 장성로 컬푸드 직매장(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식영업을 개시했다. 해당 매장은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며, 지역 문화센터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시설 팀이 설치한 출입문을 통해 GIST 학생들도 매장을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성군 400여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GIST에서 가까운 지역 농업인이 재배한 상품을 유통과정이 짧은 직매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판매나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도록 돋는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정현 점장은 "안전한 농

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안정된 농가소득으로 미래 농업의 발판을 만든다"며 매장을 소개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재단법인 장성며 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 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뿐 아니라 장성군의 푸드플랜 사업을 맡아 진행한다. 푸드플랜은 ▲생산 ▲소비 ▲안전 ▲영양 ▲식품 복지 ▲환경 등 이슈를 다루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푸드플랜의 목표는 수요에 맞는 농가의 기획생산 체계를 확립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신 점장은 "푸드플랜이 숲이라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나무에 해당한다. 푸드플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1,600곳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매장 내부에는 농수축산물 코너를 비롯해 다양한 코너가 입점했다. 냉장·냉동 가공품 코너, 화훼 코너, 베이커리 등을 찾을 수 있다. 과채류는 장성군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공품은 장성산 재료 50%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매대에 올린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반 마트와 다르게 술, 담배 등 고산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판매되는 가공품과 공예품은 지역 농가가 참여해 생산한 상품이다. 신 점장은 "처음에는 일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공산품을 팔지 않아 실망

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도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취지를 알고서 이곳을 자주 찾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광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접할 수 있다. 매장 설립 과정에서 장성산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시설을 광주에 짓는 것에 대해 광산구 농업인 일부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산구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며 지역 농산물 유통에 힘을 쏟았다. 소비자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도농상생 협력 판매대에서 원산지가 광산구인 농산물도 함께 접할 수 있다.

〈3면으로 이어짐〉

## 보도

# 계속되는 일상 회복…대면 행사 ‘청신호’는 아직

〈1면에서 이어짐〉

## ‘화 달라진’ 기숙사와 캠퍼스 풍경

학생들은 가을학기 첫날부터 대면 수업에 참여했다. 다섯 학기 만에 이론 과목부터 예체능 실기까지 대부분의 강의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학적팀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학사 운영 기본 방침을 안내했다. 본 방침에 따르면 수강인원이 많더라도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한다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빨리지면 교육부 조치에 따라 학사 운영 방향이 변경될 수 있다.

원활한 대면 수업을 위해 기숙사 입소 제도가 변화했다. 4주에 걸쳐 입소 인원을 나눴던 지난 학기까지 와 다르게, 이번 학기 기숙사 신규 입소자는 개강 이를 전부터 일괄적으로 입소했다. 기숙사 입소 후 1주 일 동안 T하우스에서 격리하는 능동감시 제도 역시 폐지됐다. 학생들은 배정받은 호실에 바로 입소해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했다.

## 밴드 공연, 활발한 행사 신호탄 될까

밴드동아리 도도한쭈쭈바(이하 도쭈)와 휴강의스프레스(이하 휴의)는 9월 23일 연합 공연 ‘재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연 전반부는 도쭈, 후반부는 휴의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도쭈는 지난 5월 문행위에서 주최한 ‘여름, 밤, 캠핑’ 행사에서 공연을 선보인 경험에 있지만, 휴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공연이

다. 두 동아리는 밴드 구성원과 관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쭈와 휴의는 이번 학기를 기점으로 매 학기 정기 공연을 열 예정이라 밝혔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휴의 부원 이한서(기초, 22) 학생은 “이번 연합 밴드 공연이 그간 활동이 없어 잊혀가던 동아리를 알리고, 그동안 제한됐던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쭈 동아리장 김형준(소재, 21) 학생은 지난 5월 문행위에서 주최한 ‘여름, 밤, 캠핑’ 행사에서 진행한 공연에서 얻은 호응을 떠올리며 “이번 공연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밴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도쭈와 휴의의 공연은 10월에 열릴 하우스 가을 야시장, 대학 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다.

## 가을 야시장, ‘불어난 콘텐츠’ 기대

하우스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 하우스 가을 야시장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우스 기을 야시장은 각 하우스 구성원 간 유대감을 쌓도록 돋는 행사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본 행사는 2021년도와 같이 대학기숙사 건물과 제2 학생회관 사이의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우스연합회 정선혜(생명, 21) 총하우스장은 “방역 정책과 행사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하우스 가을 야시장에서 눈여겨볼 콘텐츠는 다양 한 체험 및 세입 부스와 푸드트럭에서 제공되는 음

식 등이다. 하우스연합회는 포토존 등 학생들이 색다른 추억을 쌓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우스연합회는 풍선 다트와 신발 양궁 등 미니게임 부스를, 동아리 BGM과 erutlucbus는 각각 부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킹에는 도쭈, 막무가내, 개인 밴드 풍당풍당이 참여한다. 하우스연합회는 가을 야시장 행사에서 하우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상 회복,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대학 축제와 같은 대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돼야 한다. 안전팀이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한 GIST 운영기준’은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대학 축제 역시 축소해 진행되거나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다.

일상 회복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GIST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행사와 관련해 안전팀 김익수 팀장은 신체 접촉이 예상되거나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동일 시간대 및 장소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등 다양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무엇보다 원내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기본 방역 수칙을 항상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원내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선후 수습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 제1회 졸업생 초청강연시리즈 행사 개최

지난 8월 1일, 지스트대학 A동에서 기초교육학부와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졸업생 초청강연 시리즈 행사가 막을 올렸다. 제1회 강연자는 오상현 동문(물리, 15)이 선정됐다. 오상현 동문은 GIST를 졸업한 뒤 UC Merced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상 문학과 천체물리학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 이상 시 연구하는 물리학자, 오상현 동문

오상현 동문은 2021년에 기초교육학부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이상 시인의 문학을 기하학과 물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화제가 됐다. 이 교수는 “오상현 씨가 ‘이상 문학과 과학’ 수업에서 졸업 전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함께 논문으로 발전시켰다. 그 후 여러 신문에 기사화됐으며 주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동문이 이상 시인의 「삼차각설계도」와 「건축 무한육면각체」에 대해 기하학적 및 물리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모습에서 그의 창의력과 응용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교수는 “오상현 씨는 학부 시절부터 주변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타인이 겪지 않도록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오상현 동문의 학부생 시절을 회상했다.

오동문은 자신의 학교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그곳을 개

척하며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오동문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 GIST 언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부에서 물리광과 학과로 전과한 경험을 말하며 진로 설정의 불확실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질의응답에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응과 열정으로 화답했다.

## 선배와의 만남의 장이 열리다

졸업생 초청강연 시리즈 행사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소통을 돋고 졸업 이후의 진로와 삶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초교육학부 학부장 송정민 교수는 “GIST 101 과목에서 22학번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배들과의 만남’이 꼽혔다”고 밝혔다. 또한 본 행사에 오상현 동문 초청을 제안했던 이 교수는 “GIST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졸업생의 활동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교육학부는 행사 기획 취지에 걸맞은 졸업생 강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 교수는 “사회에 자리 잡아, 공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졸업생. 그리고 특히 GIST만의 특별함이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소개해줄 졸업생을 섭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현 동문이 이상 시에 관해 작성했던 논문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기초교육학부는 대내외 경로나 GIST 대학 동문화와의 소통을 통해 강연에 초청할 졸업생을 선정한다.

제2회 행사는 2학기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초교육학부는 졸업생을 주제적으로 초청하기보다 졸업생 강연자 섭외 가능 여부와 일정에 맞춰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전했다. 송 교수는 “선배의 경험담과 조언을 통해 학부생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진로를 찾고 이를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많은 학부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넘어 지역민과 상생의 길로



광산구 도농상생 협력 판매대에 다양한 농산물이 진열된 모습이다.

## 〈1면에서 이어짐〉

### 소비자를 위한 생산자의 약속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열되는 농산물은 출하 기준에 따라 진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지역 농가는 출하 교육을 마쳐야 센터와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한 번 출하 교육에 참여한 지역 농가는 장성군 관내 다른 매장 등에도 다양한 판로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포장한 농산물에 원산지와 생산자 이름을 명시한 라벨을 붙인다. 생산자가 라벨을 붙이고 농산물을 매대에 올리면 직원들이 농산물을 농가별로 정리한다. 생산자의 사

진을 농산물이 진열된 매대에 붙이기도 한다. 지역 농가의 생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셈이다.

나아가, 당일 수확한 과채류는 그날 바로 판매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 기한을 둔다. 통합지원센터 오현정 경영 지원팀장은 "과채류는 진열 기한이 1일이라 아침에 가져온 물건이 남으면 저녁에 도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오후에는 농산물을 더 이상 진열하려 오지 않는나"고 서너 시간에 매대가 비는 이유를 밝혔다. 영업 종료 시각이 오후 8시로 비교적 이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요리 교실로 로컬푸드의 가치 알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문화 센터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판매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를 알리기 위한 장소"라는 신 점장의 말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2층은 요리 교실 등을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사용된다. 요리 교실은 해당 로컬푸드를 출하한 농민이 직접 진행하며, 지역 농산물로 음식을 직접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반은 그림책 푸드 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인반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직접 요리 한다.

요리 교실의 운영 목적은 로컬푸드 홍보에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성산 비질 판매기 저조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요리 교실을 기획했으며, 지난 7월 27일 첫 수업을 진행했다. 요리 교실은 로컬푸드 직매장 블로그나 매장 연락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 팀장은 "GIST 개강 후에는 학생을 비롯한 GIST 구성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 GIST 내부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시설팀은 지난 6월 GIST에서 로컬푸



제1 학생회관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가는 누가지 길을 표시한 약도다.

드 직매장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와 출입문을 설치했다고 알렸다. 대학원기숙사 뒷길을 따라 이동하면 출입문을 찾을 수 있다. 제1 학생회관에서 출발하면 약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은 학생증 등 ID 카드가 있어야 열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GIST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우 수습기자

kimseoung22ug@gm.gist.ac.kr

#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GIST에서 개최

202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이하 여름학교)가 지난 7월 24일부터 2주간 GIST에서 화학과 주관하여 진행됐다.

여름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2022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여름학교를 주최하는 대한화학회 화학 올림피아드 위원회에 따르면, 본 여름학교의 목적은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할 대표 학생들을 선발 및 교육하고, 화학영재를 조기 발굴해 국제 수준에 걸맞은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화학 성장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 이외에도 주최 측은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화학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화학의 대중화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여름학교를 통해 선발된 학생은 겨울 학교 입교시험을 치른다. 이후 최종 선발된 학생은 2023년 7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기 입교평가에 합격



한 고등학교 1학년 53명, 2학년 19명은 GIST 화학과 교수진으로부터 화학 이론과 실험을 배웠다. 1학년 부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온라인으로 수학했으며, 2학년 부는 대면 강의 형태로 GIST 대학 화학전공 학부 수준의 화학 이론과 분석, 유기화학 실험을 학습했다.

### GIST에서 여름학교가 열린 이유는

여름학교는 매년 화학 올림피아드 위원회가 전국 대학교 화학과와 협의해 주관 학교를 정한다. GIST는 과학 발전을

을 만난 시간"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GIST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실험환경과 연구 안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학교 내에 연구안전 센터를 갖춰 안전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실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 화학 연구를 꿈꾸는 학생에게

서 교수는 화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전공 선택에 관한 조언을 남겼다. GIST는 무학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부 1학년 때 다시 전공 선택을 고민하게 되지만,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가능성만으로 학과를 선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화학과 졸업생들은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학교, 정부출원연구소 및 회사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진출해있다고 말했다. 화학과는 졸업 후 취업과 진로 결정에서 다양한 기회를 생각할 수 있는 학과이므로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수습기자 swkim0211@gm.gist.ac.kr

## 보도

#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GIST 피움단



8월 4일, 'GIST와 함께하는 과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8월 4일, GIST '피움단'은 전북여자고등학교와 대구 경암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GIST와 함께하는 과학캠프'(이하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이공계열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다. 캠프에 참여한 단원 및 중고등 학생에게 행사 참여 소감을 물었다.

2021년에 창설된 GIST 사회공헌단 '피움단'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을 제공한다. 작년 피움단은 기존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배움마당과 GSOP(GIST Science Outreach Program) 등 판서와 교재를 이용한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과 체험 중심으로 개편했다. 피움단 활동은 모두 단원들의 기획과 준비로 이뤄진다. 개편 이전에 비해 다양한 수업 내용을 갖추고 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4부로 나누어 이뤄졌다. 1부에서는 연구소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중등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이하 CT 연구소)와 지능형 의료 로봇 연구소를 방문했다. CT 연구소에서는 AI 기반의 '동적 공간 인지형 미디어 월 플랫폼 기술'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 무대 전시를 직접 경험했다. 지능형 의료로봇 연구소에서는 로보틱 지팡이를 체험하고 Active knee orthosis<sup>1)</sup> 시연을 감상했다. 한편, 고등부는 고등광기술연구소(APRI)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광학 실험 부품을 이용한 빛의 중첩 현상과 광학 측정 등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2부는 GIST 교원의 강연이 있었다. 중등부는 물리광과학과 김근영 교수 가 '아인슈타인의 유산 - 블랙홀과 중력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제로, 고등부는 지구환경공학부 김준하 교수 가 '대전환(MoT 전환)'과 다섯 가지 미

래 산업'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4부는 전문가 진로 특강과 입학설명회 등 진로 멘토링이 열렸다.

피움단이 참여한 시간은 3부였다. 중등부는 '초음파를 이용한 인공지능 자동차 만들기', 고등부는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을 이용한 시계 반응'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피움단이 각 주제의 원리를 먼저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강의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단원들도 성실히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예산 부족으로 못 했던 실험, 직접 참여하니 아이들이 더 열정적"**  
- 대구 경암중 지도교사와의 인터뷰

대구 경암중학교(이하 경암중)는 학교의 규모가 작아서 학생들의 관심 분야별로 실험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경암중 학생들은 컴퓨터, 기계, 물리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관련된 실험을 해본 경험은 적었다. 하지만 이번 과학캠프에서는 관심 분야를 사전에 조사한 덕분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경암중 지도교사는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를 조종하는 대신 학생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전에 흥미로운 실험이었다"고 칭찬했다. 더불어 "이런 실험은 어렵지도 않으면서 자기 작품을 가질 수도 있어 성취감이 더 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는 물음에 경암중 지도교사는 강한 긍정을 표시했다. 교사는 "학업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피움단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학생들이 보호와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스포츠 물리

로 진로를 설정했다며 기뻐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번 행사를 GIST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암중 지도교사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GIST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과기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알게 됐고, 차후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조별 수업, 새로운 수업 방식 경험하니 색달라"- 전북여고 학생과의 인터뷰**

전북여자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을 받기 힘들었던 학생들이 참가했다.

고등부는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을 이용한 시계 반응<sup>2)</sup> 실험을 진행했다. 피움단원들이 참여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해 선정한 주제다. 전북여고의 한 학생은 "평소에 관심 있던 생화학 관련 실험을 하니 뜻깊었다. 특히 피움단원이 친절히 설명해줘서 어려운 내용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북여고 학생들이 기존 학교 수업과 달랐던 점으로 꼽은 것은 모둠 실험이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앉아 어려운 점을 서로 협력하며 해결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실험 수업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듣지 못했던 수업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이 서로 친해질 수 있으면서도 실험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준비 힘들었지만, 뿌듯함이 더 커던 피움단 활동"- 피움단원 인터뷰**

행사에 참여한 피움단원도 교육을 준비하면서 새로 배우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 중등부 교육을 담당했던 김채림(화학, 19) 단원은 교육 봉사를 하면서 얻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김 단원은 "작년에도 피움단에서 활동했다. 도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했을 당시, 한 학생이 전복 채집 때문에 결석했던 적이 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지내며 내 주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첫 수업 끝나고 수업이 재밌었다는 연



피움단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경암중 학생을 도와주고 있다.



전북여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앉아 실험하고 있다.

락을 받았을 때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고등부를 담당했던 박혜인(화학, 19) 단원은 "피움단 활동을 하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한다"고 답했다. 박 단원은 "전공이 아닌 분야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지식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최근 화제 되는 과학 소식을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주말과 방학마다 활동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원은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만의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힘들었다"고 답했다. 박 단원도 "바빠지면서 처음의 포부나 다짐을 잊게 될 때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며 솔직하게 답했다.

그럼에도 두 단원은 모두 피움단이 창설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왔다. 활동을 마치고 났을 때의 성취감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피움단의 장점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뽑았다. 박 단원은 "GIST와 대학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이 종종 있다. 이런 때 대학생끼지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수업에서는 듣지 못하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움단은 2학기에도 랜선 멘토링, 찾아가는 과학캠프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1) 뇌출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가능한 헬팅기반 보행 외骨骼 로봇이다. 뇌출증 환자의 보행 중 무릎을 더욱 효율적으로 훈련하도록 돋는다.

2) 시계반응은 예측 가능한 시간을 유도 후에 그 시간이 지나면 변색, 침전 생성 등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이다.

# 김희삼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GIST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저출생에 의한 인구 위기의 원인 탐구 및 그 해결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스트신문>에서는 김희삼 교수를 만나 저출생·초고령화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희삼 교수는 저출생·초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정책을 강조했다.

##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김 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 교수는 "인구 위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에 관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연구 분야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후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 분야를 많이 연구했다. 노후소득보장 등의 고령화 문제나 청년 문제, 노동시장 문제, 세대 간 갈등 문제 등 인구 구조 변동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폭넓게 연구해 왔다.

## 저출생·초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의 문제다. 저출생은 피부양자 수 대비 부양자 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 분야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다. 1980년까지도 2.8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2018년부터는 세계 최저 수준인 0명대 함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4세 정도 된다. 중위 연령이 청년 나이인 22세였던 1980년에 비해 불과 40년 만에 중년의

나라가 된 것인데, 40년 후인 2060년에는 중위 연령이 61세로 노년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 정도의 고령화 추세라면 우리나라 며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 극저출생·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저출생·초고령화는 예견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완화, 적응, 기획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위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단계가 필요하다. 그에 이어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게 기존의 각종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적응 단계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획 단계가 따른다.

저출산 대책과 같은 완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응이나 기획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완화의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 적응 단계 역시 급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 희생,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완화를 통한 속도 조절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완화는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방기하지 않고 해결하자는 목표도 있다. 최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마련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되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평범한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완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1990년대에는 연간 60~70만 명씩 태어났지만 2000년대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격감했다. 같은 출산율이라도 출산연령인구 수에 따라 출생아 수는 크게 다르게 되므로,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다를 수 있다. 90년대생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앞으로 10년 이내가 정책 효과 측면에서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까지 약 10년간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매우 이려운 시기다. 완화 노력이 이런 의미들을 가진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교육의 관점에서는

###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인구 구조가 바뀌면, 교육 역시 평생 학습형 인적자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돈, 시간, 노력 등 모든 투자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 투자도 초중등교육에 집중됐지만,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유아교육 단계는 아이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자 격차가 발생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유치원 마지막 1년 정도는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혁신의 요람으로 공적 투자를 늘리고 지역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과 직업 세계의 급변이 인구 구조의 급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만큼, 취업 후에도 지식과 숙련을 갱신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가 빠르게 더 잘 갖추어져야 한다.

##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 의료 분야의 개선 방향은?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이나 복지 재정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도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한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는 것이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연명 의료를 받으면 건보 재정이나 병상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평생 의료비 중 4분의 1이 마지막 1년에 지출되며, 그중 절반 이상은 마지막 3개월에 집중된다. 지금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해두어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연명 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사회적 기본값으로 하고, 받고 싶은 사람만 간편하게 자기 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연명 의료 자체에 동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생의 좋은 마무리에 대해 성찰하는 사회가 되

었으면 한다.

## 극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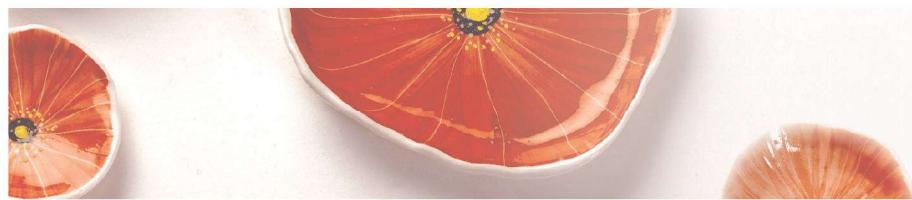
더 많은 사람이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득권을 가진 기성 세대가 사회적 염치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기숙사를 지을 때 주변 원룸 임대업자들이 방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주거 빈곤 위험에 몰린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회적 염치를 갖는 예시로 세대 내 재분배 노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의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 그렇기에 정말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를 하더라도 일하는 청년, 중년 세대에게 과세의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산 보유량이 많은 노년 세대에게 세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 내 연대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자산을 현금 형태로 유동적인 전환이 가능한 제도를 더 활성화하면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다.

## 극저출생·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 GIST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해로하며 살아온 노부부가 건강하고 행복도가 높다.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주택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고, 인건비는 상승할 전망인 만큼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했으면 한다. 한편 우리 GIST 학생들은 연구, 기술개발, 스타트업 구상 등에 있어 인구 구조의 급변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앞으로 증가할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 수요를 미리 읽어내어 이에 맞게 준비하면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인적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현아 작가 도예전  
key030704@gm.gist.ac.kr



김현아 작가 도예전

행복한 꿈

## 기획

### I<동문회 사람들>

〈동문회 사람들〉은 GIST 선배와 가벼운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그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 확신과 도전으로 이뤄낸 성과, 김혜진 동문 만나다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GIST 학부 졸업생 146명 중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3명이다. 해외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GIST 학부생에게는 막막한 현실이다. 〈지스트신문〉은 지난 8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의 Ph.D 프로그램에 진학한 김혜진 동문(물리, 18)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머신러닝과 융합한 응집물질물리학자, 김혜진 동문

김혜진 동문은 GIST 물리학 학사를 취득하고 코넬 대학 물리학과(Department of Physics)의 Ph.D 프로그램<sup>1)</sup>에 진학했다. 김혜진 동문의 주된 관심 분야는 응집물질물리학 중 강상관계와 위상 상전이에 관한 연구다. 응집물질물리학은 입자 간 상호작용이 강해 응집된 물질의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강상관계는 구성 입자들이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계를 말하며, 운동에너지보다 상호작용 에너지의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 김혜진 동문이 진학한 연구실은 강상관계, 위상 및 양자 임계점을 주로 연구한다.

김혜진 동문의 연구실에서는 응집물질물리학과 여러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 동문은 “현재 맡은 프로젝트는 구글과 협동해 양자 컴퓨팅과 머신러닝을 다루는 연구다.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최신 주제다”

라며 분야를 소개했다. 학부 졸업 연구로 강상관계에 머신러닝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했던 김 동문은, 해당 분야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지속하게 됐다.

#### 학부 생활은 미래의 연구자답게

김혜진 동문은 학부 시절 참여한 프로젝트와 인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응집물질물리학 분야로의 진출을 결정했다. 김 동문은 “김근영 교수님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깊게 참가하며 전산물리에 관심이 생겼다. 이후 전산물리 연구실 인턴으로 지내며, 응집물질물리학에 흥미와 적성을 느꼈다”며 관심 분야를 좁혀갔던 과정을 소개했다.

졸업 전 4학기 동안에는 쉬지 않고 조교 활동을 이어왔다. 김 동문은 “주로 이론물리학 분야 대학원생은 전체 프로그램 동안의 편당<sup>2)</sup>을 수업 조교로 충당하기 때문에, 조교 활동을 해본 학생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수업 조교를 했던 경험이 입시 서류 준비 및 면접 과정에서 강점으로 활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동문은 학점관리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학점 관리에 관한 질문에 김 동문은 “교재 위주로 공부했다고 답하면 너무 진부할까 걱정이다”라며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임을 역설했다. 김 동문은 “물리 전공과목은 물리 수식의 아름다움을 감히 이해해보겠다는 허황한 꿈을 버리면 공부하기 더 수월하다”며 물리학과

학생에게도 유쾌한 조언을 전했다.

#### 도전 정신으로 시작된 유학의 길

김혜진 동문은 본래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해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생각이었으나, 학부 졸업 후 바로 도전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김 동문은 “해외 대학원 입시에는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들지만, 설령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분명 얻어갈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혜진 동문은 관심 분야와 편딩의 안정성, 그리고 학식의 질을 고려해 코넬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김 동문은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가 제일 고민이었다. 합격하면 바로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목표를 높여 코넬 대학에 원서를 냈다”며 설령 합격 가능성이 적은 대학이라도 본인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

대학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연구자의 자질이다. 김혜진 동문은 연구 경험과지도교수가 작성한 추천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GIST가 연구 중심 학교이기에 관심 분야의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교수님께 추천서도 받을 수 있었다”며 대학원 입시의 경우 무엇보다 연구 관련 활동이 우선시돼야 할을 강조했다.

김혜진 동문은 유학을 함께 준비하는 스터디가 입시 전 과정에 많은 도움이



코넬 대학 물리학과 연구실 앞에서 웃고 있는 김혜진 동문의 모습이다.

됐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유학 입시는 누구에게나 생소하고 혼란스럽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동문은 “합격 결과를 기다릴 시기에 유학 준비 스터디원들과 서로 다독이며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함께 고생한 탓에 전우애도 생겼다”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진 동문은 해외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라는 말을 건넸다. 김 동문은 “타국 땅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거주할 준비를 하는데, 그전까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쉬운 마음이다”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은찬 기자 eunchan\_supernova@gm.gist.ac.kr

1) Ph.D 프로그램 : 미국의 STEM 분야의 Doctorate degree program, 즉 박사과정을 말한다. 한국의 석박사 통합과정과 유사하다.

2) 편당 : 학교, 정부 또는 연구 보조금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재정 지원. 보조 조교(TA), 연구 조교(RA), 대학원 조교(GA) 및 프로젝트 특정 연구 지원 자금 등의 종류가 있다.

## 수습교육을 마치며

# 기자가 된다는 것

설렘. 세상을 가르쳐준 신문은 내게 꽤나 설레는 것이다. 신문에서 느낀 즐거움과 기자로서 세상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합쳐져 신문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기자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두 달간의 수습 기간은 생각보다 값진 경험이었다.

신문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내가 아는 신문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론 교육도 의미가 있었지만, 신문을 읽어오며 무의식중에 알게 된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물론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많았지만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운 것이 더 인상적이었다. 짧은 기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기획하고 다양한 취재 활동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퇴고까지 어느 하나 쉽사리 끝나는

것이 없었다. 선배 기자님들의 책임감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2년 남짓 활동하는 대학 언론의 기자임에도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모습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자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걱정. 나도 선배 기자님들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신문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걱정이었다. 당장 몇 달 뒤면 내 손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기획이나 인터뷰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책임감 같은 마음 가짐도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맡은 일은 꼭 해내겠다는 성격인 만큼 성실히 기사를 써낼 수는 있지만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다.

이런 고민에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습 교육의 성과였다. 수없이 반복되는 퇴고 과정을 보며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기에 서로에게 피드백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함을 느꼈다. 같은 이유에서 정기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배우는 수습기자의 마음으로 활동해야함을 깨달았다.

기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에 당장 모든 걱정을 떨쳐낼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신문을 통해 느꼈던 설렘과 여러 방면에서 도움 주시는 선배 기자님들에 대해 감사함을 지스트 구성원에게 전달한다는 다짐은 변함없이 나를 지탱할 것이다. 수습 기자 경험을 언제나 마음 한 가운데 두며 조심이 잊지 않는 기자가 되고자 한다.

김애리 수습기자  
key030704@gm.gist.ac.kr

제3회 광주과기원 문학상

## 공모 결과 발표

### ◇ 소설 부문

#### 당선작 및佳作

없음

### ◇ 시 부문

#### 당선작

없음

『사는 30분 만에 휘갈기는 것이다』

송혜근

『쓰는 것들은 모두 닳아서』

신재룡

## | 시 부문 가작

# 시는 30분 만에 휘갈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는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 한글을 한 조각 한 조각 깎아내어 유물 캐듯이 시를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언젠가 사람이 내 앞에 칼을 들이대는 상상을 했다

그 사람이 내게 30분밖에 주지 않는다면, 난 30분 안에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

캠퍼스 안 모든 벚꽃들을 피웠다 지워 버리고, 자살하려던 연인을 구출하고, 앞에 칼을 들이댄

그 사람을 땅에 묻어 버리기까지-내게 주어진 시간 30분 안에-할 수 있을까 놀랍기도 몇몇 시인은 그걸 헤낸다

시인은 자신이 만든 세계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시인은 자신이 만든 세계로 도망친 뒤 그 세계를 물고 지구를 들이받는 사람이다

깨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라

말하자면 시는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매번 뒤엎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폭력 폭력의 다른 이름은 정의의 다른 이름은 선동-

철학의 역사는 친부살해의 역사라던가 내가 만든 세계는 나를 죽였다

내가 만든 세계가 지구를 들이받았다 설레는 사랑시를 쓰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랑은 폭력 사랑은 자기파괴 사랑은 내 몸을 깎아 다른 사람의 몸을 이식하는 것

가장 밀박부터 재건할 수 있을까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사랑의 규칙을 다시 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날 애타게 시간을 찾았다. 30분만 더. 30분만 더. 30분만 더

삽화 = 윤세림 기자

송 혜근  
(소재, 20)



## | 시 부문 가작

# 쓰는 것들은 모두 닳아서

내 이름을 네게 주고 싶어.

손에 쥐어진 반듯한 이름표, 네 이름이 곱게 적혀있다.

인디언들은 이름에 영혼이 있다 믿었다.

너의 이름은 왜 노을일까?

붉게 물든 하늘만큼 아름다워서일까,

곧 사그라들고 말 맑음이어서일까.

쓰는 것들은 모두 닳아서 입안에서 되뇌고만 있다.

네 이름이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혀끝에선 단내가 난다.

물건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네 이름도 닳는 것일까?

네 이름은 물건일까, 사람일까.

네 이름을 너처럼 사랑해야 할까.

내 이름도 너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누구에게도 이름을 주지 못해 혼자가 되었다.

이름을 두 개 지닌 사람이 되이

머리가 두 개 자라난 기괴한 그림자를

물끄러미 지켜본다.

삽화 = 윤세림 기자

신재룡  
(전컴, 19)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시는 30분 만에 휘갈기는 것이다」와 「쓰는 것들은 모두 닳아서」를 가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30분 만에 휘갈기는 것이다」는 시적 혁명에 대한 추상적 언술과 사랑에 대한 서정적 진술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이 돋보였다. 시로써 포착할 수 있는 모순과 간극에 대한 사유를 밀고 나아갈 것을 제안해 본다. 「쓰는 것들은 모두 닳아서」는 명명(이름 붙이기)과 은유 사이에서 혼란으로 출현한 시적 언어를 이미지로 형상화한 부분이 돋보였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평 中

## Social

# Working in GIST Laboratories as an Undergraduate Student Intern

GIST is one of Gwangju's most prestigious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with several research centers and laboratorie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breaks, most laboratories allow undergraduate student interns to work inside the labs.

## General Information

GIST values research above anything else because its central vision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by carrying out research opportunities that solve day-to-day problems. As a result, much effort goes into the experiments and research carried out at the institution. GRI (GIST Research Institute) encompasses all eight major research centers in GIST. It also comprises other essential research centers, which were previously independent departments and science & technology application research groups within the university. This is done to ensure the cooperation of research planning bodies, R&D sites, Tech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 companies.

## Requirements,

### Process of application, and Tasks

In order to start working at the lab, students first apply to the laboratory of their choice. They must first do thorough research on the available labs under each major and then reach out to the professors of the labs they are interested in. GISTNEWS asked three students from different majors, "How do you decide which lab to work in?" Two students stated that they got most of their information from seniors who had previously worked in those labs. In addition, one student intern who worked in a Biomedical Science lab advised that students should email the professor 1-3 months beforehand. Later the professor will call or text

them to visit the lab.

According to professor Seunghee Han, dean of the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interns' tasks vary from undertaking an independent project to assisting graduate students in the lab. For the first few weeks, students will be accompanied by a mentor who will guide them until they become acquainted with their surroundings. The professor emphasized that the most crucial aspect for undergraduate students i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instruments used inside the lab and the process of prope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most cases, undergraduate students who start working at the labs are at least sophomore students. Even though the requirements vary between different labs, they all require student interns to be passionate about the lab and are willing to devote their time to learning. Some labs, however, require that you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experiments done in the lab and have taken a course related to that.

### Work Schedule and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ponses GIST NEWS gathered from Undergraduate Student Interns, GIST labs present an optimal working atmosphere that encourages cooperative learning and experience sharing. All our interviewees said that the lab environment is respectful and encourages the free flow of ideas among interns, graduate researchers, and professors. In addition, the labs hold weekly meetings where undergraduate student interns can receive feedback about their work and check their overall progress.

The work schedule varies from lab to lab but on average; two students

mentioned that they worked 4 to 5 hours a day. Professor Han of the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also said that undergraduate students work about 20 hours a week on average.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for all students. According to another student majoring in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some undergraduate interns work the whole day from 9 to 5. "Most professors are flexible with the schedules," she said. "You just have to tell them about your schedule when you apply."

Working inside a lab is a great experience to have insight into the career of students' interests by providing real-life experiences. According to one student who was a research assistant for GIAI (GIST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highly encourag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find the lab of their interest and work for some time. She explained that her experiences during the internship have helped her affirm her interest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s a career. She told us that her internship opportunity has drastically improved her programming skills, and she was able to educate herself about many trends in AI. This student's internship at GIST has widened her scope of opportunities. She told us that she was able to get another great chance after her experiences in the GIAI lab. "Now I am working as an intern for KAIST LK Lab at AI Graduate school," she said. Even though skill and knowledge are some of the invaluable assets students should aim for while doing internships in GIST labs, some of the labs also provide monetary benefits to student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ccording to a student from the school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it is easy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work inside the labs because GIST is an institution with a small student body compared to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in the country. Therefore, students have plenty of opportunities and are highly encouraged to work in the lab of their choice. "We should take advantage of that," she said. Other students we interviewed also noted that doing an internship in GIST is a great experience and recommended that students pursue their interests in internships in the labs. They believe theoretical education geared with an opportunity to apply classroom knowledge to real-life applications is a stepping stone to a successful career.

Working inside a lab among graduate students and professors can get overwhelming as an undergraduate. One student mentioned that she had difficulties with the instruments used inside the labs. Another student working inside a chemistry lab also said that she sometimes gets confused because she does not know the names of the different types of equipment. However, these technical difficulties are learning opportunities students can use to sharpen their skills following a summer internship in a research lab. Professor Han also raised her concerns that the tasks assigned to undergraduate students might be redundant to the students a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s a time-consuming process that needs to be reproducible and reliable. "However," she said, " Long-term goals can be achieved by small boring tasks."

Abebe, Mihret Yihalem (mihret.abebe@gm.gist.ac.kr)  
(proofreading: Ellis Lee)

■ 사임	
책임기자	최현빈
	박지원
<b>정기자</b>	
정기자	최승규
	웹마스터
웹마스터	김연혁

■ 임명	
정기자	김상우
	김성우
정기자	김원제
	김연우
정기자	김애리
	웹마스터
웹마스터	김선명

##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김기선

주간 이주형 편집장 이은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http://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https://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